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예수가 오신 이유

얼마 전, 어느 장로가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초췌한 얼굴이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꿔는데요, 의사가 수습역을 가져오면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놀라 잠시 잠에서 깬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또 의사가 나타나서 제게 역대의 돈을 주면 낮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연신 그런 꿈을 꾸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당최 모르겠기에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는 대답했다. “박 장로, 자네의 병은 사람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다는 꿈이라네. 그러나 걱정 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나? 그런 자네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나.” 내가 성도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아플 권리가 없다. 우리는 가난해야 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다 청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째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1).

둘째는 이 세상의 삶을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삶의 도적, 즉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악한 영을 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3:8).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이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2:10).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1).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으랴. 그저 감사할 뿐이다. Merry Christmas!

예수님은 천국을 광고하러 오셨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성탄절과 새해를 맞는 연말연시 시즌임에도 우리는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려 한다. 예수께서 유언으로 명령하신 구원의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교육부서가 준비한 공연을 통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다. 이 또한 값진 일이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올림피아공원 시절,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를 통해 영혼 구

아니겠는가!” 지난주일, 원래는 1991년 크리스마스 전도집회 실황을 보여줄 계획이었다. 되돌아보면 그날 오전, 오후, 저녁까지 하루 3회에 걸쳐 전도집회를 진행했고, 올림피아공원 펜싱경기장이 인산인해로 물려든 인파로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였다. 그 집회에서 소경이었던 이순희 성도가 눈을 뜨는 기적으로 대소동이 일어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영상은 집회의 현장과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주일 새벽, 정확히 오전 5시 2분에 영상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2002년 가나 타코라디 집회 영상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다. 원래 집회 전체가 담긴 영상은 2시간짜리로 상영하기에 너무 길었기에 실제 집회 실황 부분은 빼고 집회 준비과정

이미 국내에서 수많은 집회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셨기에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즉시 방송을 잡고,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독려하며 전단지들을 등사하여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거리로, 시장통으로 나가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고, 집회 당일 낮까지 혼신을 다해 광고에 올인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은 다 했기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집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끝으로 떠나오시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게 된 사실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미 목사에 대해 일체의 금전적 문제 제기 없이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재정을 도와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1991년 크리스마스 전도집회(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원의 사역에 매진해왔던 기억,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시는 목사님께서 코로나를 지나고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크리스마스 총동원 전도집회를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이것이 그분의 생신날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

까지만 담은 1시간짜리 영상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2001년 예루살렘기도원에서 개최된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에 참석한 가나(Ghana)의 세미 쿠에쿠(Sammy Kweku) 목사는 가나에 40만 대집회를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 선교의 경험이 일천한 시기인지라 그의 말을 듣고 매우 고무되었고, 집회 준비를 위해 많은 비용도 제공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니 그의 말은 허언이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현실에 주저앉지 않으셨다.

그 후 가나의 오부아시(Obuasi), 세콘디 타코라디(Sekondi-Takoradi), 코포리두아(Koforidua), 수니아니(Sunyani) 등의 도시에서 더 크고 성공적인 집회들을 이어가셨던 것은 타코라디 집회의 뼈저린 경험과 이를 극복하는 믿음의 노하우가 이룬 결과라 생각한다.

우리 목사님을 따라 또다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보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광고하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서울교회 예배 안내

88체육관 사정으로 인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교육관과 각 기도처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문의 02.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8)

무엇이고 광고하지 않으면 알 자가 없다

우리는 지난주일, 2002년에 있었던 아프리카 가나 집회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집회는 애초 약 40만 명 정도가 모이는 대형집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서 첫날밤에 꿈을 꿔는데 집회 장소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무 밑에 사람들이 몇 명 웅기 쫘기 모여있는 장면을 보고 화들짝 깨서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집회를 성공시켜야 했기에 직접 홍보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라디오 방송국 4개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며 직접 광고를 했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들을 나누어주며, 시장통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등, 집회 광고에 진력했습니다. 그 결과 '너도나도 가보자' 해서 집회 장소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나뿐이 아닙니다. 2006년, 우크라이나 남부의 오데사 집회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집회를 준비한 니콜라이 목사는 집회 장소로 88체육관 만한 넓은 장소를 빌려놓았지만, 실상 집회에 찾아온 사람은 300~400명 정도였던 참담한 집회였습니다. 광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필리핀 바기오(Baguio) 집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패착은 '이초석 목사님만 모시면 당연히 차고 넘칠 것'이란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준비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고는 생존전략이요 성공에 이르는 첩경이다

여러분, 광고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광고와 성공은 동반자요, 파트너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내고 광고에 주력하는 것입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전도 대축제, 총동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행사가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에 합당한 '한 영혼 전도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광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로10:14~15). 예수님을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료를 지불해서라도 알려야 합니다. 슈퍼볼(미국

프로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의 광고료는 30초당 광고료가 자그마치 30억 이상입니다. 초당 1억인 셈입니다. 냉장고 하나 팔겠다고, 차 한 대 팔겠다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리는데 최소한 택시비, 밥값은 지불해야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막16:15).



총회장 이초석 목사

'예수를 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된 것입니다. 이는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고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며 목숨까지 바쳐 전도의 일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주님의 명령을 수행코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2024년에도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사명에 부도내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항명은 절대 불가한 것이고, 불순종했을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함

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찌 될까요?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숫군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겔33:2~4).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광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물으신답니다. 전하지 않으면 피값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경고

의 말이 씌여 있습니다. "너는 사 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24:11~12).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막아야지요.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달려가 그 아이를 건져내야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화가 있지만, 명령을 잘 수행하면 상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제가 지난주에 하늘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천국에는 많은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상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이 큼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관제와 같이 별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6~8).

광고와 성공은 정비례한다 성공하길 원하면 광고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단연 으뜸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막1:38),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음은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막3:14). 교회의 사명 역시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심도 아직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15:16).

아직 구원받을 백성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게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딤후4:2).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마18:12).

주인이라면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겠지요.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눅15:5~6).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신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립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해 옵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사52:7).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찬양과 경배::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누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낄까? 당연히 금메달리스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다음은 당연히 은메달리스트?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경영학과 빅토리아 메드벡 교수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흥미롭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의 만족도가 동메달을 딴 그것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조금만 실수를 안 했으면, 심판이 조금만 더 공정했으면 금메달인데...’ 하는 아쉬움이 발목을 잡아 불만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잃은 것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닐까? 영국 신경경제재단(NEF)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해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바누아투는 호주와 뉴질랜드 부근의 80여 개 섬으로 이뤄진 작은 나라다. 인구라야 고작 209,000여 명에 불과하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93%,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1/10인 2,944달러에 불과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 삶의 만족도는 이처럼 높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102위, 영국은 108위, 프랑스는 129위,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국은 150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결국 행복감을 좌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누리

느냐가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는 정말 성경 속을 걷고 있네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모임 중에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이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것이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니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 누구 하나 ‘고되다, 불편하다’ 불평하는 이가 하나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나은 예배 처소를 예비하셨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이는 총회장님의 믿음이 모두에게 전염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의심은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리고 불신앙은 불안과 불평을 낳는다. 반면에 믿음은 감사와 순종을 낳는다. 하나님은 무릎으로 목회하시는 총회장님께 세계 선교를 맡기셨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단과 성도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를 맡기셨다. 여기에 ‘서울 성전 이전’이라는 과제를 통해 더욱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 여기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엡2:10).

신현명 목사

크리스마스!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 성탄절 행사에 참여했는데 연습을 위해 갔던 전도단 건물 앞 가판대에서 자주 बे지밀을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는 बे지밀 먹는 날, 선물을 받는 날, 그냥 겨울의 기분 좋은 어느 날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 자라고 난 뒤에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하는 많은 공연들에 참여하고 준비팀으로서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보다 행사를 준비하는데 더 정신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목적인 바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그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롬5:8).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요14:6).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윤예녹 생도



:: 교단소식 ::

명품은 물건도 좋고 포장도 잘한다



“이 예배가 끝나, 시작이냐?” 12월 14일, 2023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종강예배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서두에 꺼내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종강예배로 받아들이 ‘내년 개강 때까지 좀 쉬어 볼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 ‘이 기간에 더욱 도전하고 노력해보자.’ 할 것이다.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가? 나는 여러분의 영·혼·육이 명품이 되길 원한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명품은 여전히 잘 팔린다. 너희가 명품이 되면 너도나도 너희를 원할 것이고, 어디서 목회를 해도 성공할 것이다. 명품은 물건만 좋은 것이 아니다. 포장도 멋지고 근사하다. 먼저는 지식을 함양하

여 물건의 질을 높여라. 노력하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총알 없는 총, 돈 없는 지갑을 들고 있는 자가 되지 말라. 지식을 쌓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3:14)고 말했듯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노력하고 배워라.’ 더욱이 주의 종은 대통령에서부터 노숙자까지 상대해야 하니 배타성을 버리고 다방면에 배우고 터득해라. 포장도 좋아야 한다. 같은 그림이라도 프레임이 좋으면 그림이 돋보이듯, 너희의 외적인 것들, 즉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언어와 표정이 좋아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장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여자 생도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거울을 본다. 흐트러진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또한 말을 잘하고 표정 관리를 잘하라. 언어와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나라’(잠25:11) 한 것이다. 잘 짓는다고 명견인가? 아니다. 짓을 때 짓고, 잠잠할 때 잠잠할 줄 아는 것이 명견이다. 이러한 내적 요소, 외적 요소를 가꾸기 위해서는 편안함이란 블랙홀에서 나와야 한다. 왜 블랙홀이라 했느냐 하면, 한 번 편안한 맛을 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편안함이란 목회를 좀먹는, 인생을 좀먹는 암적 존재인 썸. 그래서 늘 나와 싸워야 한다. 편안해지려는 나와 싸워 이겨야 명품 목회자, 명품 인생이 된다. 목회 39년, 나는 늘 나 자신과 싸웠고, 한 번도 편안함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둘째, 명품 목회자가 되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해야 한다. 나는 사무실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액자를 걸어놓고 수시로 이것을 보며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100% 바른 판단, 정도를 택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주인의식을 강조하셨다. 누가 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뒤져 찾아낸다. 왜? 자기 것이니까. 어느 목자가 아흔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다 결국 찾아낸다. 왜? 내 양이니까. 목회자에게 주인의식이 없다면 교회는 절대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또한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왜 정죄하는가?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기에 정죄한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인정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개혁의 걸림돌은 배타적인 생각이다. 마음을 넓히면 시야가 넓어진다. 성경에는 명품의 정의를 이렇게 적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 나는 이곳에서 명품 목회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목회자,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배출되기를 소망한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예배 후 총회장 목사님과 교수진, 그리고 재학생들이 맛있는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는 말씀을 이루는 신학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신묘수 전도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세상 창문을 닫고 하늘 창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은혜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문으로는 온갖 죄악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며, 마귀의 시험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이 창저 창을 열다가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창을 열고 계십니까? 세상의 창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창, 기도의 창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진짜 나’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진짜 나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에 집착하여 돈, 명예,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허상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예

수님은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데 그런 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며, 회철한 무덤 같은 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나’가 구원을 받았다면 보여주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 모습은 깨끗한지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자, 권력자가 앉아서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면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낮아져 섬기는 겸손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도 최후에 영광스

러운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며 겸손히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길을 주셨습니다. 멋져 보이는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길과 은혜가 소중합니다. 한평생 다윗을 시기하며 헛된 인생을 보낸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세상 창은 닫고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길’을 믿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길 끝이 아닐는지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Good News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상실했다면 실패하기로 작정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나침대로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거부의 복을 받은 자들 역시 단 한 톨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만홀히 여긴 에서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덤

이고 보너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은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상화평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경에서 배운다 ::

신앙의 집 점검하기

흙으로 된 멋진 집을 한 채 지어본다고 가정합시다. 아무리 흙집이라 해도 건축 재료가 흙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튼튼하고 쓸모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못 등등 각종 재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재료를 한곳에 몽땅 부어만 놓는다고 집이 되진 않습니다. 설계라는 비전과 계획, 터를 다듬는 밑작업, 기둥 세우는 작업 등등 모든 일에 질서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구조물이 설계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혹은 내가 원하는 성도들과 교제나 행사만으로는 집의 재료가 완전치 않습니다. 내 삶을 향하신 설계도, 즉 사명과 비전을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정직과 성실로 삶의 터전을 닦으

며, 예배와 기도로 기둥을 세워야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정결하고, 많은 이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는 멋진 성전이 될 수 있지요. 물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설계도와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벌써 공기가 차가워져 가는 만큼 저 역시 신앙의 집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마침 소속된 공동체에서 성경 읽기가 시작된 터라 성경을 묵상하며 되짚어 보았지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읽을 때는 달콤하면 서도, 이것이 배 안으로 들어와 나를 비춰보니 결점과 실수로 온통 촛맛이 되었습니다(계10:10).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쌓였는데도 아직도 영성한 모양새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덕분에 부서진 신앙의 구멍들을 확인하며 보수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가감 없이 하

나님께 회개하고 호소했던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도였지만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자신 안에 감춰진 ‘악의 구멍’을 찾고 메우기에 열중했던 사도 바울처럼,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인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모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의 끝자락에 선 지금, 연말이라는 이유로 학업, 업무, 모임에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내 신앙의 집을 다시금 점검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발견된 내 삶의 허점들이 비록 쓰고 아플지라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한다면 다가올 2024년에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 글꾼의 주님 ::

링컨과 성경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구차한 농가에서 태어나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너무나 가난하여 통나무집에서 살아야 했었다. 게다가 여덟 살에 어머니까지 여의게 되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보던 성경을 주면서, “네게 물려줄 유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늘 읽으면서 그대로 실행하기를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평생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써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때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 말씀 덕분이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며, 성경 말씀 속에는 인류를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연설했다. 링컨은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옛 친구 스피드에게 자네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신앙을 얻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기 어려운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루스벨트는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며,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하여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치하했다.

링컨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읽고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다.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야 인격이 잘되고, 인격이 잘되어야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링컨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이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유일한 책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다.

이승효 목사

임마누엘
immanuel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